

중한 혼합문에 대한 연구

(중국) 복단대학 김종태

중국이 처한 특수한 인문 사회적인 환경은 유구한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중화 민족의 다원 일체화(多元一體化)의 사회적 문화 국면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중국의 여러 민족들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에서 오랜 세월 함께 공통체적 생활을 하여 왔으며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각 민족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에서의 빈번한 내왕과 접촉으로 인하여 각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두 가지 언어의 혼합이나 혼용 현상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중언어 코드 전환 등 부동한 언어 사이의 접촉 현상도 매우 보편화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언어 연구에 있어서 언어의 접촉을 연구하는 언어변이 현상이 하나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언어연구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민족 관계연구에 대하여서도 극히 중요한 이론적 의의와 실천적 의의를 갖게 된다.

현재 중국에는 약 200 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족들이 주로 중국의 동부 지방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살고 있다. 그들이 한국을 떠난 시기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한국과 격리된 지 이미 약 50 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족들은 민족 언어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 언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국어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연구과제이고 중국어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미 있는 과제라서 사회 언어학의 흥미 있는 과제가 된다. 또한 최근 한중 관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국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번번하여지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국어의 언어 변이는 의사소통상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중한(中韓) 이중 언어 코드 전환 현상에 대하여 연구해 보려고 한다.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87 만 명으로 추산된다. 중한 이중언어 코드전환은 이 지역의 조선족들의 사회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언어 접촉 현상이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에서 조선족들의 의사소통의 주요한 방식은 (1)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2) 중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3) 중한 이중 언어 코드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의사소통 방식은 실제상에서는 균형을 이루며 서로 대치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현상을 언어가 순수하지 못하다거나 또 한국어나 중국어를 잘 배우지 못하여 나타나는 그릇된 현상으로 간주하여 왔기에 이런 현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그 원인의 하나로는 이중 언어 코드 전환 현상을 취급할 때 중국어나 한국어 이 두 가지 언어 가운데서 그 어느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하여 그 언어에 쓰이는 표준에 근거하여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현상을 취급하면서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현상을 한국어의 문법적인 규범에도 부합되지 않고 중국어의 문법적인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언어 사용 방면에서의 순수하지 못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런 현상에 대하여 비평하고 반대하여 왔다.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지난날 이런 현상 자체가 갖고 있는 규칙성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이 극히 적었으므로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연구에서 많은 문제들이 아직 연구되지 못하였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문형인 혼합문에 대하여 간단히 연구하여 보려고 한다. 그 목적은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상황과 언어 변이 실태를 고찰하고 그것을 분석하려는 데 있다. 아래에서 필자는 1. 혼합문의 정의; 2. 혼합문의 유형; 3. 혼합문의 생성 조건 등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중한 혼합문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를 하려 한다.

1. 중한 혼합문에 대한 정의

중한 혼합문이란 중국어와 한국어라는 두 가지 이질적 언어의 문장 구조가 서로 혼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문장 내의 코드 전환(intrasentential code switching) 범위에 속한다. 중한 혼합문에서는 한국어(중국어)의 문장성분이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한국어)문장성분을 겸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1) 我們都對學校的改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我們=우리, 都=모두, 對=에 대하여, 學校=학교, 的=의, 改革=개혁]

우리 모두가 학교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我們都對 (Pr)			
	學校的改革		
	에 대하여(Pr)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			
중/한			
공유부분			

화자는 중국어를 사용하여 중국어의 어순(Pr+ NP), 즉 '전치사+ 명사구'의 어순으로 발화를 시작하였다가 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한국어의 'NP+ Po', 즉 '명사구+ 후치사' 어순을 사용하여 중국어의 명사구[본 예문 중에서는 '學校的改革'를 가리킴]를 그 뒤에 오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 속에 혼합시켜 놓았다. 여기서 명사구 '學校的改革'는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에 있어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연결시켜주는 중계 작용을 하는 브리지로 된다. 이 중계 작용을 통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부동한 문법 구조가 순탄하게 연결되어 문장 내의 코드 전환 문(intrasentential code switching)을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한다면 중국어와 한국어 이 두 가지 언어의 공유 성분인 '學校的改革'가 발화가 중국어의 언어 체계로부터 한국어의 언어 체계로 전환되는 브리지로 중계작용을 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라.

중국어

그림 1

2. 중한 혼합문의 분류

중한 혼합문은 연변 조선족의 일상 언어 생활 가운데서 늘 사용되는 문형의 하나이다. 혼합문은 혼합이 이루어진 그 구조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Pr+ NP+ Po', 즉 '중국어의 전치사+ 명사구+ 한국어의 후치사' 구조로 된 유형이다. 이 유형의 혼합문은 중국어의 전치사 구조(개사 구조)와 그에 대응되는 한국어 후치사가 명사구와 결합할 때 사용되는 부동한 어순이 서로 작용한 결과 한곳에 융합되어 이루어진 문법 구조이다. 중국어에서 방향이거나 위치 또는 관련된 대상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명사구와 결합할 때 사용되는 어순은 'Pr+ NP', 즉 '전치사+ 명사구'의 구조이나, 한국어에서 그것과 대응을 이루는 어순은 'NP+ Po', 즉 '명사구+ 후치사' 구조이다. 여기서

중국어나 한국어의 NP 는 다 똑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응되는 명사구이며, 이런 유형의 혼합문은 이러한 NP 를 중국어(한국어) 구조에서 한국어(중국어) 구조로 연결하는 과도적인 매개(아래에 줄을 친 부분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같지 않은 구조를 연결하여 주는 과도적인 매개로 됨)로 한다. 이렇게 중국어와 한국어 문법적 구조가 서로 혼합되어 'Pr+ NP+ Po', 즉 '중국어의 전치사+ 명사구+ 한국어의 후치사' 와 같은 유형의 혼합문을 이룬다. 예를 든다면:

(2) 隔壁的李大爺在老年俱樂部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데요.

(Pr + NP + Po)

[隔壁的=이웃집의 李=이 大爺=할아버지 在=에서 老年俱樂部=노년구락부]

이웃집 할아버지가 노년구락부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데요.

(3) 我們都對學校的改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Pr + NP + Po)

[我們=우리, 都=모두, 對=에 대하여, 學校=학교, 的=의, 改革=개혁]

우리 모두가 학교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부류는 'VC+ O+ VK', 즉 '중국어 동사+ 빈어(목적어)+ 한국어 동사'로 구성된 유형이다. 이 유형의 중한 혼합문은 중국어의 '동사+ 빈어(목적어)' 구조와 한국어에서 이와 대응되는 문법 구조 '목적어+ 동사' 구조가 동사와 빈어(목적어)가 결합할 때의 서로 다른 어순이 혼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어에서 동사와 빈어(목적어)가 결합할 때의 어순은 'VC+ O' 형식을 취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와 정 반대로 동사와 목적어가 결합할 때 어순은 'O+ VK' 형식을 취하게 된다.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빈어(목적어) 'O' 는 똑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응된 문법 성분이다. 때문에 이 부류의 혼합문은 빈어(목적어) 'O'를 중국어와 한국어의 부동한 구조를 상호 연결시켜주면서 매개 역할을 하는 브리지로 하여 'VC+ O+ VK' 유형의 혼합문을 형성한다.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4) 他是 全國 勞動 模範이다.

[他=그(의), 是=아버지, 是=은/는이다]

그의 아버지는 전국 노동 모범이다.

(5) 순회한테 打電話를 했다.

[打=하다, 걸다; 電話=전화(목적어)]

순희한테 전화를 했다.

(6) 他好象只通知了我一吒人한 것 같다.

[他=그, 好象=마치... ..와/과 같다, 只=오직, 通知=통지하다, 了=완료를 나타냄, 我=나, 一吒人=한 사람]

그가 나 한 사람에게만 통지를 한 것 같다.

(7) 好象 기차가 晚点한 듯 하다.

[好象=마치... ..와/과 같다, 晚点=(차·선박·비행기 따위가) 연발(延發)/연착하다]

기차가 연착한 듯 하다.

예문 (4)에서 중국어에서 판단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是'+ 빈어+ 한국어에서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 서술격 조사 '이다'로 혼합문이 형성되었는데, 중국어에서 어순은 “是+ 學生”이고 한국어에서의 어순은 '學生+ 이다'로 된다. 여기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공유하고 있는 명사 '學生'을 브리지로 하여 혼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문 (5)에서 중국어의 '동사+ 목적어' 구조로 된 '打電話'는 한국어에서는 '전화를 하다'에 대응되는 구조인데 그 중의 중국어의 '電話'와 한국어의 '전화'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단어로서 똑 같은 대상을 나타낸다.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어의 電話'를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질적인 문장구조를 연결시켜 주는 브리지로 하여 중국어와 한국어를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혼합시켜 예문 (5)와 같은 'VC+O+ VK' 유형의 혼합문을 형성하였다. 예문 (6)은 중국어의 통사구조 '好象只通知了我一吒人'과 한국어의 구조 '나한테만 알린 것 같다'를 혼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한국어에서 '-遁 것 같다'란 격식은 한국어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 '-遁'+ 의존명사 '것'+ 형용사 '같다'로 구성되었는데 중국어에서 추정의 뜻을 나타내는 '好象... ..似的'에 해당된다. 예문 (7)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는 중국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코드 전환을 거친 후 형성된 것으로서 중국어의 '好象+ VP' 구조와 한국어의 'VP'+ 관형사형 전성 어미 '-遁'+ 의존명사 '듯'+ 동사'하다'가 혼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부류는 'CONJ+ VP+ CONJ' 즉 '중국어 접속사+ 동사구+ 한국어 접속사'구조로 이루어진 유형이다. 이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복합문 가운데서 진술 단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떠한 어순으로 어떤 접속사나 보조사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는가에 따라 생긴 구조적 차이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원인, 조건, 가정, 양보 등 관계를 나타내는

연접사(連詞)들은 복합문의 서두에 놓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늘 진술의 단위들 뒤에 놓이기 때문에 중국어 복합문과 한국어 복합문은 서로 혼합되어 'CONJ+ VP+ CONJ' 즉 '중국어 접속사+ 동사구+ 한국어 접속사'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8) 因爲路給滑하기 때문에 조심해 걸어야 하겠소.

[因爲=(접사) …… 때문에, …… 에 의하여(원인이나 이유를 먼저 말할 경우) 路=(명사) 길, 給=(정도 부사) 아주, 매우 滑=(형용사) 미끄럽다]

길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 걸어야 하겠소.

(9) 只有多讀多練하여야만 提高寫作水平을 할 수 있다.

[只有=(접사)…… 해야만(……이다), 만약 ……라면, 多=(형용사) 많다,

讀=(동사) 읽다, 多=(형용사) 많다, 練=(동사) 연습하다/훈련하다,

提高=(동사) 제고하다/끌어올리다, 寫作=(명사) 글 쓰기/창작,

水平=수준]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여야만 글을 짓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10) 如果他來了하면 회의에 참석시키오.

[如果=(접사) 만일/만약, 他=(대명사) 그/그 사람, 來=(동사) 오다.

了=문장의 말미 또는 문장 중의 끊어지는 곳에 쓰여서 변화 또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표시하는 조사]

만일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키오.

(11) 雖然他年齡小해도 아는 것은 많다.

[雖然=(접사) 비록 …… 일지라도(하지만), 他=(대명사) 그/그 사람,

年齡=(명사) 연령/나이, 小=(형용사) 어리다/작다]

그 사람이 비록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 아는 것은 많다.

예문 (8)에서 한국어 복합문을 원인 관계로 연결하는 보조적 단어'……기 때문에'는 앞말이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이 됨을 나타내는 격식으로 중국어의

'因爲'거나 '由于'에 해당한다. 예문 (9)에서 복합문을 조건 관계로 연결하는 '……하여야만'은 중국어에서 앞에 사실이 뒤의 사실에 대한 유일한 조건으로 됨을 나타내는 '只有'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只有'는 뒤에 늘 '才'나 '方'자를 수반하여 쓰이나 이 혼합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문 (10)에서 복합문을 조건 관계로 연결하는 '……하면'은 중국어에서 가정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假如'나 '如果'에 해당한다. 예 (11)에서 복합문을 양보적 관계로 연결하는 '……아도(……어도/……여도)'는 중국어에서 '雖然'에 해당한다.

3. 혼합문의 생성 조건

필자는 주체결합문(主制語合句)에 한 선행 연구에서(漢語學習, 1998年第1期를 참조)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문장의 문법적 프레임(frame)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명사, 형용사 등 단어들의 선택 과정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격조사나 보조적 단어들의 선택 과정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실제에 있어서 어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단어를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문법적 기능만을 갖고 있는 단어, 즉 다시 말하면 개방된 부류를 이루는 단어(open class items)들과 폐쇄된 부류를 이루는 단어(closed class items)이 두 가지 부류의 단어로 나누어 놓고 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언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 결과는 아동들이 어릴 때 개방된 부류의 단어(open class items)를 문법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단어들(function words)보다 더 일찍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Brown,1973). 즉 다시 말하면 처음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아이들이 하는 말은 '전보식' 말로서 이러한 말에서는 개방된 부류의 단어들이 빈번하게 출현되고 있지만 폐쇄된 부류의 단어(closed class items)들은 그리 나타나지 않는다.

(2) 실어증(aphasia)에 대한 연구는 브로카(Broca) 실어증 환자가 폐쇄된 부류의 단어를 처리하는데 아주 힘들어 하지만 개방된 부류의 단어를 처리하는 데는 그리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Zurif, 1980).

(3) 실언(speech error)에 대한 많은 연구도 개방된 단어 부류들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말을 틀리게 하지만 소위 형태소의 지연(morpheme stranding errors)에 의한 실언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상에 열거한 사실과 중국어/한국어 이중 언어 코드 전환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개방된 부류의 단어에 대한 사용 방식과 폐쇄된 부류의 단어에 대한 사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즉 인간의 대뇌에서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한 기억 방식과

접근(access)방식이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한 기억 방법과 접근 방법과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언어 처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장의 문법적인 프레임(frame)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단어들이 활성화(activate)된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장의 의미적 내용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다. 언어 처리의 이 두 가지 단계에 근거하여 우리는 중한 혼합문의 생성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중한 혼합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먼저 자기가 표현하려는 의도에 따라 문법적인 프레임(frame)을 구축하게 된다. 화자가 문법적인 프레임(frame)을 구축한 후 혼합문 형성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문법적인 프레임(frame)에 형성되는 빈자리(slot)에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끼워 넣는다. 이런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형성된 빈자리에 끼워 넣는 과정에서 만약 화자가 선택한 구체적인 단어가 B 언어로 된 문법적인 프레임(frame)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단어일 때 화자는 자기가 선택한 단어들을 B 언어로 된 문법적인 프레임(frame)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되어 A 언어에서 선택한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리적으로 B 언어로 구축된 문법적인 프레임(frame)에 끼워 넣어지게 되는데, 이 때 화자는 B 언어로 된 문법적인 프레임(frame)을 계속 사용하여 혼합문의 기타 부분을 완성하게 된다.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폐쇄된 부류에 속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키는 역할도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과는 다르다. 만약 화자가 A 언어로 발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A 언어로 발화하는 동시에 또 B 언어로 된 문법적인 프레임(frame)을 새로 구축할 수 있어야 혼합문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중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때 반드시 B 언어 가운데 폐쇄된 부류의 단어들을 이용하여야 그것이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12) 昨天從我的一吒朋友한테서 이 소식을 들었다.

[昨天=어제, 從=(개사) 용언의 동작이 그 뒤에 오는 체언에서 비롯됨을 나타내는 전치사, 我=(인칭대명사) 나, 的=의, 一=하나, 吒=단위 명사, 朋友=친구]

어제 내 친구한테서 이 소식을 들었다.

(13) 어제 내 친구한테서 昨天從我的一吒朋友那里聽到這吒消息

[昨天=어제, 從=(개사) 용언의 동작이 그 뒤에 오는 체언에서 비롯됨을 나타내는 전치사, 我=(인칭대명사) 나, 的=의, 一=하나, 吒=단위 명사, 朋友=친구, 那里=(대명사) 그곳 (인칭명사나 인칭대명사 뒤에 놓여 비장소명사를 장소명사로 바꿈), 聽到=들었다, 這=(대명사) 이, 吒=단위 명사, 消息=(명사) 소식]

어제 내 친구한테서 어제 내 친구한테서 이 소식을 들었다.

예문 (12)와 예문 (13) 가운데서 예문 (12)는 혼합문이지만 예문 (13)은 혼합문이 아니다. 그것은 예문 (12)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중국어의 문법적인 프레임(frame) 'Pr+ NP'로 발화를 조직하여 '我的一吒朋友'(NP)를 중국어의 문법적 프레임(frame)에 끼워 넣었다. 그런데 한국어의 문법적 프레임(frame)은 'NP+ Po', 즉 명사구 뒤에 후치사 '……한테서'가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중국어로 된 문법적 프레임(frame) 속에 '我的一吒朋友'(NP)라는 명사구를 끼워 넣고, 곧 그 뒤에다 한국어의 후치사 '……한테서'를 끼워 넣어 '我的一吒朋友한테서'란 'NP+ Po'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중국어의 '我的一吒朋友'를 중한 이중언어 코드 전환에서의 연결 브리지로 하여, 방금 중국어로 발화를 시작한 문장 구조를 그 뒤에 형성된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연결시켜 한국어와 중국어가 혼합하여 이루어진 'Pr+ NP+ Po'의 구조를 가진 중한 혼합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예 (13)에서는 화자가 처음에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로 말을 조직하여 한국어의 문법적 프레임(frame) 'NP+ Po'에 '나의 친구한테서'를 끼워 넣었는데, 한국어 'NP' 명사구나 '나의 친구' 뒤에 이미 후치사 '한테서'가 존재하고 중국어는 오히려 'NP' 명사구를 전치사의 뒤에 놓는다. 때문에 만약 억지로 중국어의 전치사 '從'을 한국어 문법 구조 뒤에 옮겨 놓는다면,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 'Pr+ NP+ Po'라는 프레임(frame)을 이루게 된다. 즉 다시 말한다면 예 (13)에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중국어의 문법 구조에 융합되어 혼합문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13)에서는 하는 수 없이 'Pr+ NP+ Po'에 'NP'를 첨가하여 'Pr+ NP+ Po+ NP'란 격식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혼합문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에 중국어나 한국어를 문법적 구조면에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브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혼합문에서 중한 문법적 구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는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구성될 수 있지만, 결코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는 구성될 수 없다.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혼합문을 연결시켜주는 브리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문 (13)은 중복되는 문장의 일종이지 결코 혼합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문 (13)에서는 처음 한국어로 발화한 부분을 다시 중국어의 똑 같은 의미로 중복한 후 중국어로 말을 조직한데 불과하다.

이상 우리가 혼합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진 단어와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가진 단어들이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문법적인 프레임(frame)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입수(access)할 때는 문법적인 프레임(frame)과 함께 입수할 수 있다. 즉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진 조사 따위의 단어들은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진 동사, 명사, 형용사 따위 단어들과 동일한 시각에서 입수, 처리되지 않는다. 중한 혼합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A 언어의 구체적인 어휘들,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B 언어로 된 문법적인 프레임(frame)의 공백 위치에 끼워 넣어 그 단어가 혼합문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구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브리지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결국에는 모두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진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단어들이지 절대로 문법적인 뜻만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만을 가진 단어들이 아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14) *路給滑하기 때문에 길이 매우 미끄러워서 조심하십시오

[路=(명사) 길, 給=(부사) 매우, 滑=(형용사) 미끄럽다]

길이 몹시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예문 (14)에서 '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단어로서 여기서는 앞말의 어떤 원인이나 까닭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법적인 뜻만 나타내는 추상적인 단어이기에 혼합문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브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예문 (14)는 중한 이중 언어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코드 전환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은 또 이런 표현을 접수하지도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혼합문은 전환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전환과정에서 프로그램이 A 언어의 어드레스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휘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때, 전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용통성은 전환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B 언어에 접근하여 동의어거나 대응되는 구조를 찾아내게 한다. B 언어에서 만약 동의어거나 대응되는 구조를 찾아내게 되면 그것으로 A 언어에서 찾아내지 못한 단어나 구조를 대신하여 A 언어의 문법적인 공백에 끼워 넣음으로써 중국어와 한국어 문법 구조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브리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 후 화자의 발화는 이러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형성된 브리지를 통하여 B 언어의 문법적 구조에로 전이되어 B 언어로 그 뒤의 말을 조직함으로써 혼합문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중 이중 언어 코드 전환에서 나타나는 실제 사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아무런 뒷받침도 해 주지 못한다.

그 예로서 예문 (3)을 보기로 하자.

(3) 我們都對學校的改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我們=우리, 都=모두, 對=에 대하여, 學校=학교, 的=의, 改革=개혁]

우리 모두가 학교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예문 (3)은 중국어의 "我們都對學校的改革給關注"란 말과 한국어의 "우리 모두가 학교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란 두 가지 언어의 문장 구조가 한데 융합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다시 말한다면 중국어 문장 속에서 'Pr+ NP'(對+ 學校的改革) 구조와 한국어 문장 속에서 'NP+ Po'(학교의 개혁+ 에 대하여)구조가 서로 똑 같은 구조와 의미를 가진 NP 부분 즉 '學校的改革'란 명사구를 중국어와 한국어 구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브리지로 삼아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이 혼합문의 앞 부분은 중국어에서 오고 뒤 부분은 한국어에서 온 것이다. 한국어의 '……에 대하여'는 [조사 '에'+ 동사 '대하(다)'+ 연결어미 '여']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그가 일으키는 역할과 의미는 중국어의 개사 (介詞) '對于'나 '對'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만약 이 혼합문이 전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문 속에서 서로 똑 같은 뜻으로 중복되는 중국어의 개사 '對'와 한국어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에 대하여' 이 둘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 만을 취하고 다른 하나를 삭제한다면 이중 언어 코드 전환 법칙에 맞는 문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예문 (3)에서 중국어의 개사 '對'와 한국어의 '……에 대하여' 이 둘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를 삭제하더라도 생성된 문장은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법칙에 맞지 않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아래의 예문 (15)에서 중국어의 개사 '對'를 삭제하여 얻은 예문 a 나 한국어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에 대하여'를 삭제하여 버린 후 얻은 예문 b 나 다 같이 비문으로 처리된다.

예(15) *a. 我們都○學校的改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我們=우리, 都=모두, 學校=학교, 的=의, 改革=개혁]

우리 모두가 학교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 我們都對學校的改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我們=우리, 都=모두, 對=에 대하여, 學校=학교, 的=의,

改革=개혁]

우리 모두가 학교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문장에 있어서 어떤 문장은 오직 예문 (3)처럼 서로 혼합되어야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예문 (15)의 a 나 b 처럼 혼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실은 혼합문을 단순히 이중 언어 코드 전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혼합문은 실제에 있어서 중한 이중 언어 코드 전환 가운데서 생기는 특유한 문장 구조이다. 중한 혼합문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서로 다른 어순들, 예를 든다면 중국어의 '전치사+ 명사구'로 된 어순과 한국어의 '명사구+ 후치사'로 된 어순, 또는 중국어의 '동사+ 목적어(빈어)'로 된 어순과 한국어의 '목적어+ 동사'로 된 어순 등의 어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그것들을 혼합하여 어순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혼합문이 형성된다.

위에서 필자는 중한 혼합문을 대상으로 그것의 정의, 분류, 생성 과정과 생성 원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연구하여 보았다. 그러나 언어의 생성과정은 화자가 자기가 표현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발화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조절을 하여 발화를 알맞게 통제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금후 많은 학자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 참고 문헌:

Azuma, S. Word order vs. word class: portmanteau sentences

in bilinguals, 1992

崔基元 <開展多學科的朝漢語雙語的研究工作> 《中國少數民族語文論文集》

民族出版社, 1986 年

崔奉春 《朝鮮語和漢語關係調查》 延邊大學出版社, 1994 年

孟柱億 <中國의 韓中 二重言語狀籟과 中國語의 影響>

경기대 《인문 논총》 창간호, 1990 年 6 월